정보통신 산업 BSI 통계

협회 조사연구실

본 협희 조사연구실에서는 매월 업체의 경기에 대한 체감지수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확보 및 정보통신산업 정책입안 및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18,000개 중 표본 2,041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 BSI에 대하여 조사(월보표본 산출기준)하였다.

조사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설문조사를 병행, 1,489개 업체(73.0%)의 응답을 얻어 정리했다.

[표] 조사내용

구분	내 용	항 목
일반사항	업체명, 작성자, 직위, 전화, Fax, 매출액 중 수출비중	당월실적, 익월전망, 익익월 전망, 호전 또는 부진 요인 (익월, 익익월 전망) 경기판단
경기판단	IT산업 경기	
수준판단	생산증가율, 내수판매, 수출, 가동률	
기업경기판단	제품재고, 생산설비, 고용수준, 자금사정, 채산성	
건의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사항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 \frac{\text{호전표시업체수} - \text{악화표시업체수}}{\text{총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Business Survey Index), $0 \leq BSI \leq 200$

※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기준치인 100이면 보합,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둔화되고 있음

1. 종합경기

o 8월~10월 월별 기업경기실사(BSI)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중동지역의 불안한 전세, 휴가시즌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8월 BSI 실적은 93으로 7월의 81에 비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경기둔화를 반영하고 있다. 9 · 10월에는 각각 120, 124로 8월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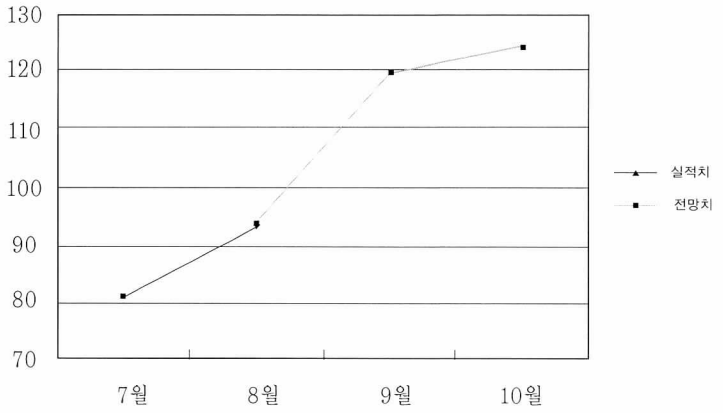
[표1] 종합경기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IT산업경기	실적치	81	93	-	-
	전망치	-	94	120	124
	실현율(%)	-	99	-	-

※ 실현율은 실적치와 전망치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금월-전월)/전월))×100의 산식에 의한 값임

o 정보통신산업 부문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에서 7 · 8월의 BSI가 87→89, 정보통신기기부문은 7 · 8월의 BSI가 86→94,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부문에서는 7 · 8월의 BSI가 72→92로 여전히 악화 수준이지만 9 · 10월에는 호조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종합경기



[표2] 부문별 IT산업경기

사업분야	7월	8월	9월	10월
정보통신서비스	87 (-)	89 (96)	- (108)	- (113)
기간통신서비스	93 (-)	77 (86)	- (86)	- (91)
별정통신서비스	91 (-)	89 (94)	- (113)	- (117)
부가통신서비스	89 (-)	89 (106)	- (115)	- (120)
방송서비스	78 (-)	94 (83)	- (99)	- (106)
정보통신기기	86 (-)	94 (99)	- (120)	- (124)
통신기기	76 (-)	97 (93)	- (119)	- (121)
정보기기	81 (-)	97 (98)	- (134)	- (137)

사업분야		7월	8월	9월	10월
	방송기기	68 (-)	88 (103)	- (132)	- (136)
	부 품	103 (-)	93 (105)	- (113)	- (121)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72** **(-)**	**92** **(88)**	**-** **(125)**	**-** **(128)**
	패키지소프트웨어	61 (-)	98 (81)	- (130)	- (133)
	컴퓨터관련서비스	74 (-)	92 (89)	- (127)	- (130)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DB제작	87 (-)	97 (100)	- (128)	- (131)
합 계		81 (-)	93 (94)	- (120)	- (124)

※ ( )내는 전망치

2. 조사항목별 경기전망

경기수준 판단

7 · 8월의 항목별 BSI 실적지수는 7월에 비해, 생산증가율(96→99), 내수판매(89→98), 수출(93→101), 가동율(99→101)로 조사되어 7월 실적은 둔화되었지만 8월 되면서 호조세로 돌아서서, 9 · 10월의 전망지수는 생산증가율(125→130), 내수판매(124→129), 수출(124→128), 가동율(122→126)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증가율

세계 경제의 침체, 원화 환율의 하락 등으로 수출둔화와 휴가시즌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8월의 생산증가율은 7월의 96보다 다소 높은 99로 악화가 둔화되었으며, 9 · 10월에는 각각 125, 130을 기록,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판매

수요감소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국내 IT경기는 7월의 89에서 8월의 98로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수판매 경기가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 · 10월 전망치로는 각각 124와 129로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

미국 경기의 불안, 중동지역의 전운 등 세계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7월은 93으로 다소 악화되었으나 8월은 101로 호조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호조세는 8월의 124, 9월의 128로 그 폭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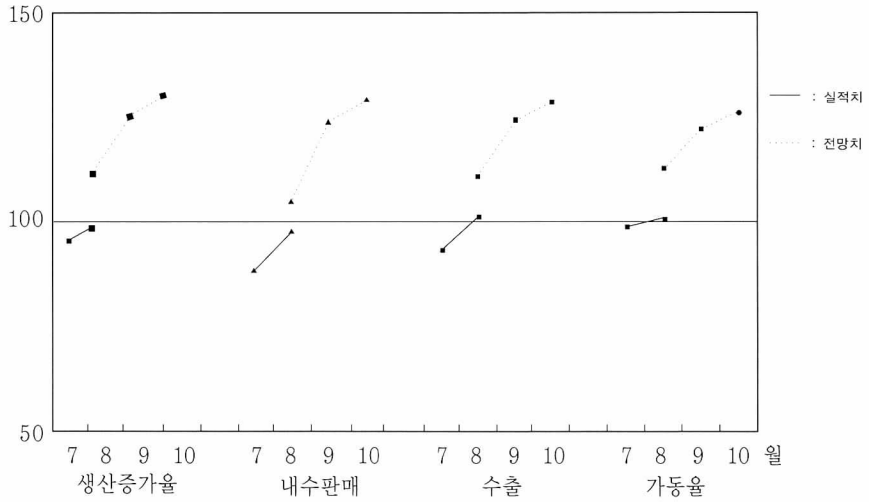
□ 가동율

수출이 상승세로 반전됨에 따라 7월 가동율이 99에서 8월에는 101로 호조세로 돌아섰으며, 9 · 10월에는 각각 122와 126으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3] 조사항목별 경기전망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생산증가율	96 (-)	99 (112)	- (125)	- (130)
내수판매	89 (-)	98 (105)	- (124)	- (129)
수 출	93 (-)	101 (111)	- (124)	- (128)
가 동 율	99 (-)	101 (113)	- (122)	- (126)

[그림2] 조사항목별 경기전망



기업경영 판단

7 · 8월의 항목별 BSI 실적지수는 7월에 비해, 제품제고(91→93), 생산설비(95→103), 고용수준(112→114), 설비투자(102→105), 자금사정(89→95), 채산성(88→96)으로 조사되어 8월에 호조세로 돌아섰으며, 9 · 10월의 전망지수는 제품제고(96→96), 생산설비(103→103), 고용수준(111→110), 설비투자(107→108), 자금사정(112→114), 채산성(166→165)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제품제고

세계 경제의 침체, 원화 환율의 하락 등으로 7월에는 91에서 8월 93으로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9 · 10월 역시 96으로 불확실한 미래 경기를 전망하고 있다.

□ 생산설비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7월 95에서 8월에는 103으로 호전세로 돌아섰으며, 9 · 10월에도 103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 고용수준

국내외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느끼는 고용수준은 7월의 112에서 8월에 114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 · 10월에도 각각 111, 110으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전반적인 경기상승기조에 편승하여 7월의 설비투자 지수는 102에서 8월 105로 호전되고 있으며 9 · 10월에 각각 107, 108로 완만하게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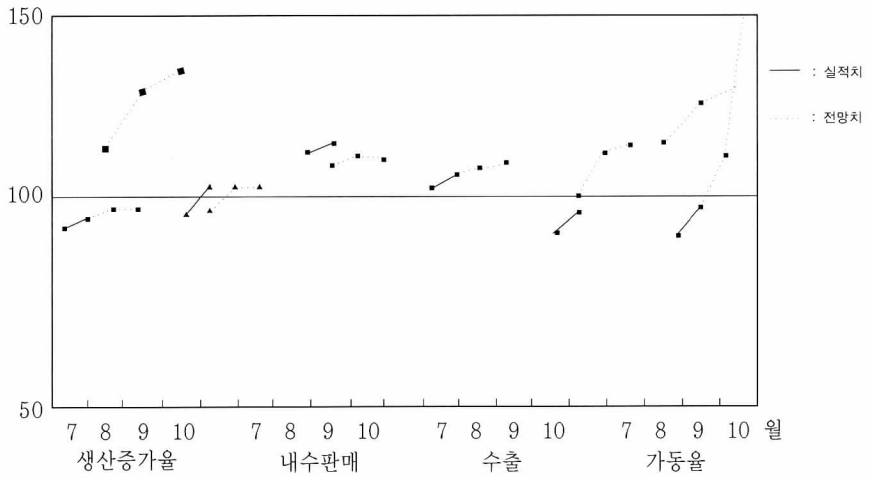
□ 자금사정

수출부진과 수요감소에 따른 경기불안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듯이 7월 지수는 89에서 8월은 95로 둔화되었으나 9 · 10에는 각각 112와 114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산성

수출감소와 환율하락으로 인해 기업채산성은 7월의 88에서 9월의 96으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9 · 10월의 각각 112, 114로 다소 호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4] 기업경영판단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제품제고	91 (-)	93 (94)	- (96)	- (96)
생산설비	95 (-)	103 (96)	- (103)	- (103)
고용수준	112 (-)	114 (108)	- (111)	- (110)
설비투자	102 (-)	105 (106)	- (107)	- (108)
자금사정	89 (-)	95 (100)	- (112)	- (114)
채 산 성	88 (-)	96 (96)	- (111)	- (113)

[그림3] 기업경영판단